

博雅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高级韩国语 上

고급
한국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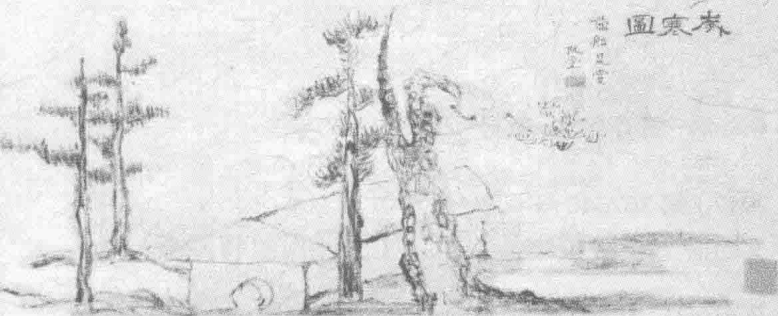
主编 / 王丹

副主编 / 南燕 (韩) 琴知雅

林成姬 文丽华 李婷婷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高级韩国语 上

고급
한국어
상

主 编 / 王 丹

副主编 / 南 燕 (韩) 琴知雅

林成姬 文丽华 李婷婷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KOREA KF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本书在编写过程中得到韩国国际交流财团资助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高级韩国语. 上 / 王丹主编.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7.4

(21 世纪韩国语系列教材)

ISBN 978-7-301-27715-7

I. ①高… II. ①王… III. ①朝鲜语—高等学校—教材 IV. ①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7) 第 267640 号

- | | |
|-------|--|
| 书 名 | 高级韩国语(上)
GAOJI HANGUOYU |
| 著作责任者 | 王 丹 主编 |
| 组稿编辑 | 张 娜 |
| 责任编辑 | 刘 虹 |
| 标准书号 | ISBN 978-7-301-27715-7 |
| 出版发行 | 北京大学出版社 |
| 地 址 | 北京市海淀区成府路 205 号 100871 |
| 网 址 | http://www.pup.cn 新浪微博: @北京大学出版社 |
| 电子信箱 | 554992144@qq.com |
| 电 话 |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54382 |
| 印 刷 者 | 北京大学印刷厂 |
| 经 销 者 | 新华书店 |
| | 650 毫米 × 980 毫米 16 开本 20.5 印张 360 千字 |
| | 2017 年 4 第 1 版 2017 年 4 月第 1 次印刷 |
| 定 价 | 65.00 元 |

未经许可, 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

版权所有, 侵权必究

举报电话: 010-62752024 电子信箱: fd@pup.pku.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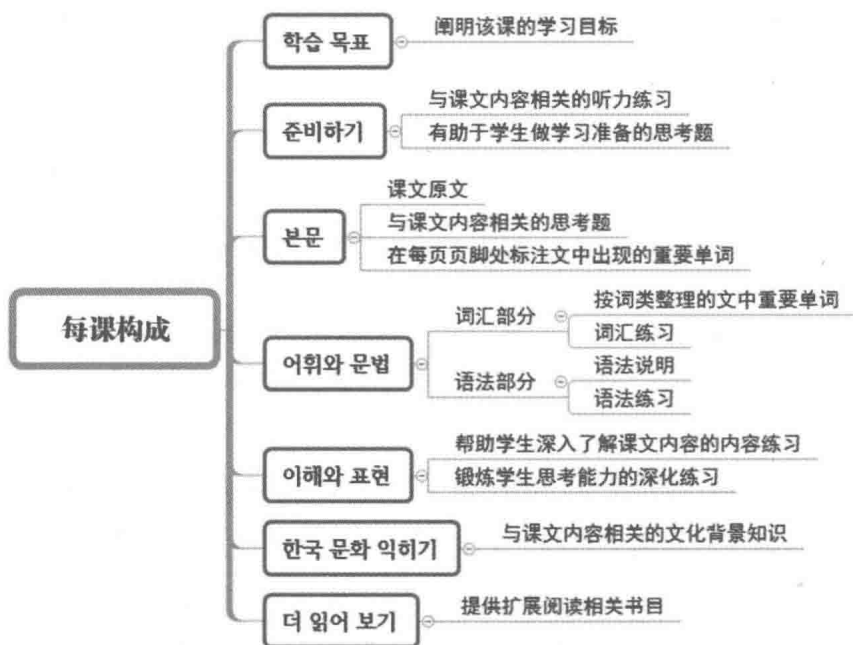
图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部联系, 电话: 010-62756370

前 言

《高级韩国语》（上、下）是中国朝鲜（韩国）语教育的摇篮——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鲜（韩国）语言文化系继《韩国语》（1-4）之后奉献给广大读者的又一倾心之作，是六名青年教师精诚合作的结果，是教材编写团队集体智慧的结晶。

从开始策划编写这套高级教材之初，我们一直在思考这样几个问题，那就是在对已经掌握了基本的语法、词汇，能够用韩国语实现基本交际功能的大学韩国语专业学生进行高级阶段的教学时，我们的教学重点究竟是什么，我们应该为其提供怎样的知识，培养其何种能力。我们在深入分析中国大学生的学习特点、社会对其实际需求的基础上，结合自身的教学经验，最终确定了教材的基本编写思路，那就是在加强语言知识、文化知识传授的同时，更重视加强学生综合能力的培养，启发学生进行有深度的思考，以期达到拓展其人文视野，提高其人文素养之目的。为体现这一编写理念，在编写过程中，我们一直努力将近年来国内外在应用语言学、朝鲜（韩国）语教育学研究方面的先进成果及我们在教学过程中积累下来的行之有效的经验与方法融入到教材之中。全套书共分为上、下两册，每册设有5个单元15课，涵盖了日常生活、语言文学、民族精神、宗教思想、文化艺术、社会制度等诸多领域，精选最能反映韩国文化的代表性文章，力求角度多元，体裁多样，同时结合“文化介绍”及“拓展阅读”等版块，为广大读者搭建一个全面深入了解韩国文化与社会的平台。在练习题设计方面，注重进行听说读写译五种功能的多维度训练，注重加强对学生理解与表达能力的培养，在对语法与词汇进行充分练习的同时，通过设计各种促进学生能力发展的训练内容，启发学生进行独立而深入的思考，以期达到语言活动与认知活动的完美结合。

本书每一课的基本结构如下：



本套教材采用的编写方法是，在集体讨论确定各单元主题及各课选材后，首先解决所有选文的版权问题，并向部分作者直接约稿。之后在确定教材单元构成的基础上，由各位老师执笔编写各课内容，最后所有编者打破分工界限，一起对教材书稿进行反复修改、完善。教材编写的具体分工情况如下，王丹全面主持编写工作并编写上册 6、10、11、12 课及下册 7、15 课；南燕协助主持编写工作并编写上册 5、7、14、15 课及下册 2、12 课；琴知雅协助主持编写工作、编写教材听力文本、韩文词句把关；林成姬编写上册 1、3、8 课及下册 4、5、9 课；文丽华编写上册 4、9、13 课及下册 3、8、11 课；李婷婷编写上册 2 课及下册 1、6、10、13、14 课。把六个人的思想完美地融合到一套教材中并非易事，既要求我们把每个人的专业优势发挥得淋漓尽致，又需要我们为全书的统一而顾全大局。在并肩战斗的近千个日夜里，在同甘共苦的艰苦过程中，我们不仅收获了知识与经验，更收获了彼此的信任与友谊。

在这套教材即将付梓的今天，谨向关心与支持我们的所有同仁表达我们诚挚的谢意！首先，我们要把发自内心的感谢献给韩国釜山大学的金承龙教授。为了能让学生学习地道的韩国语，了解韩国文化的精髓，我们决定选取韩国原版文章作为课文文本，这就意味着我们首先要取得所有选文的版权许可。当我们真正开始联系相关出版社或者作者时，我们才意识到事情的难度远远超出我们的想象。当多次联络石沉大海、试图通过官方途径解决的努力得不到回应之时，金承龙教授主动请缨帮助我们解决这一横亘在我们面前的难题。金教授牺牲了自己的宝贵时间，与几十个出版社、几十位作

者一一联系，历时一年多的时间，终于为我们从出版社或原文作者处取得了全部引用文章的版权使用许可！不仅如此，他还慷慨解囊，从韩国为我们购置大量参考图书，并在主题选取方面也给了我们诸多宝贵意见与建议。金教授的无私帮助给了我们战胜困难的勇气，而我们能做的，唯有用心编写这套教材来回报他的默默付出与真挚情谊！我们还要感谢欣然接受我们的赐稿请求，百忙之中为我们的教材亲自撰文的梨花女子大学李培镕教授、韩国国立首尔大学宋丙洛教授、权在一教授、闵贤植教授、庆北大学白斗铉教授、郑羽洛教授、釜山大学金承龙教授，他们的不吝赐文为更多渴求知识的中国学生打开一扇充满魅力的智慧之门。感谢欣然同意我们使用珍贵作品作为教材课文的所有相关出版社与原文作者。我们还要真诚地感谢抽出宝贵时间为我们认真校对书稿的我们的好姐妹——北京联合大学权震红老师、北京第二外国语学院崔英兰老师、北京语言大学丁一老师，她们热情帮助我们将永远铭记在心。感谢帮助我们对书稿做最后校对、整理的爱徒刘畅、张磊、申明钰、曹梦玥，是他们用他们的真诚给了我们最灿烂最幸福的回报，让我们更加深刻体会到了教师这一工作的意义！感谢允许我们无偿使用《岁寒图》这一韩国文化瑰宝作为教材封面的《岁寒图》所有者孙昌根老人，感谢在我们与老人联系过程中予以积极协助的韩国国立中央博物馆有关人士，感谢为教材听力部分献上完美配音的闵庆万先生、琴知雅老师，感谢为我们的教材绘制精美插图的我系才女刘雨晨同学，感谢为本书的编写与出版提供经费支持的韩国国际交流财团及北京大学国家外语非通用语种本科人才培养基地。最后，我们还要感谢此书的编辑，我们的学生兼系友刘虹的积极配合与鼎力相助！太多感激，无以言表，我们只能藏记于心；太多激励，怎敢辜负，我们唯有砥砺前行！

尽管这是一部用心之作，但由于我们的能力与经验的不足，在实际编写中难免仍会出现各种纰漏，我们真诚盼望广大读者与国内外同行不吝赐教，批评指正！

编者

2017.3

目 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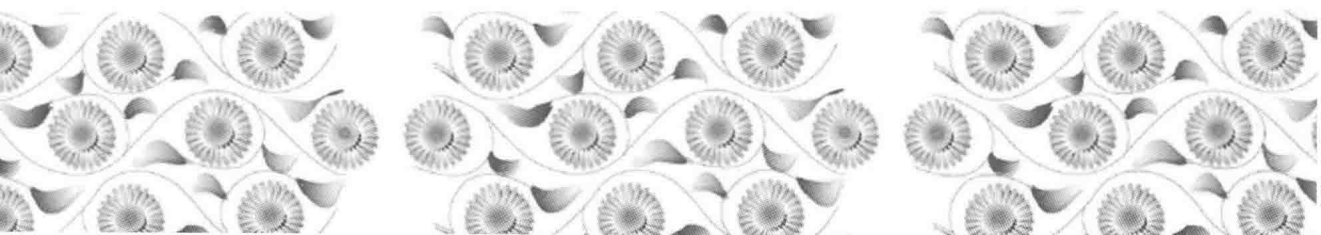
제1단원 어떻게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았는가		
01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예찬’	3
02	배고픈 날, 장떡 지지던 냄새	25
03	지혜가 담긴 집, 한옥	41
제2단원 자연과 사람을 배워 지혜로워지다		
04	산	59
05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	79
06	사람의 향기	97
제3단원 관계와 사랑을 마음결로 삼다		
07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121
08	혼자 살아도 ‘우리 집’	137
09	푸를 청, 봄 춘	155
제4단원 말, 소통의 첫 소리		
10	지혜로운 글자, 한자와 한글	175
11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197
12	한국어에 담긴 한국인	215
제5단원 글, 마음을 엮다		
13	춘향전	233
14	심금을 울리는 시가들	253
15	소나기	277



제 1 단원

어떻게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았는가

- 01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예찬’
- 02 배고픈 날, 장떡 지지던 냄새
- 03 지혜가 담긴 집, 한옥



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예찬’



학습 목표

- ★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봅시다.
- ★ 한복의 색깔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준비하기

1. 다음은 한복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말해 봅시다.

01



2. 다음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고 한복의 특징에 대해 말해 봅시다.



한국인은 언제 한복을 입는지 알아봅시다.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예찬’

최성자*

1. 민족문화와 전통 옷

1. 복식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세계 각 민족이 이루어 낸 전통문화 중 서로 비교되면서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전통 옷이다. 각 민족의 전통 옷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유한 문화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후와 산천의 영향 그리고 생산력과 문화 역량의 흐름이 모두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옷 모습에 속속들이 어우러져 있다.

2. 무슨 이유로 문화인은 당연히 서양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근대에 들어와 서구 열강의 군사력과 대량 생산된 상품이 세계 각 지역에 침투하면서 많은 민족이 오랫동안 보존해 온 전통문화가 파괴되었다. 더구나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변하면서 가치관도 세계를 제패한 세력인 서구의 기준을 따라 갔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인이 입는 옷은 당연히 서양 옷인 양복이어야 한다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실용성을 내세운 서양 옷이 역시 세계를 제패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사라진 옷이 되었다.

3. 한복은 왜 일상 생활에서 사라졌을까요?

그래도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전통문화가 지켜지는 분야도 적지 않다. 한 예가 아파트에 살면서 굳이 구들 양식과 의자 생활을 공존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실내 공간에서 구들을 지켜 온 끈질김을 복식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방바닥에 편안히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양복바지를 입고 방바닥에 앉으면 무릎 앞부분이 나오고 또 뒷쪽이 꼬깃꼬깃 구겨져 볼품이 없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즐겨 입어 온 한복은 아예 사라지고 서양식 옷의 바지 가랑이에 나타난 꼬깃꼬깃한 선으로만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의문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흐름, 속속들이, 어우러지다, 침투하다, 보존하다, 더구나, 제패하다, 지키다, 구들, 공존하다, 끈질기다, 복식, 꼬깃꼬깃, 구겨지다, 볼품, 아예, 가랑이, 꼬깃꼬깃하다

지금 세계의 흐름은 각 민족이 이루어 놓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대로 발전시킨 각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최근 세계 문화의 기본 유행을 이루고 있다. 아직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세계 문화의 중심 조류로 격상되어 유행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있다면 자연을 닮은 한국의 미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은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옷 한복은 부드러운 선과 자연스러운 색 그리고 소박한 생명성을 지닌 형태로 인해 가장 먼저 세계 시민권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우리 옷 한복의 미— 선, 색, 형

한복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의 옷 역사는 오래되어지만 그 과정을 살살이 알기는 어렵다. 우리가 한복의 원형으로서 처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옷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옷이다. 고분의 주인과 손님 그리고 문인과 무사의 옷은 지금의 한복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무언가 가슴 속에서 익숙한 듯한 맵시를 발견할 수 있다. 부인과 시중꾼의 옷에서도 그러한 느낌은 같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인물들이 입은 옷은 그때까지 내려온 고유한 복식 전통이 집약되었을 것이다.

전근대 사회의 마지막 조선 왕조에서 각 계층이 입던 옷은 한복의 전형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 옷들은 곧 고구려 고분 벽화의 옷들로 상징되는 고대의 복식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외래문화의 영향을 거둬 받아 왔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수천 년에 걸친 전통 옷의 발전은 조선 후기의 한복에서 매듭지어졌다.

양복이 압도하는 지금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복의 전통 미를 새롭게 창출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하게 조화시키는 일은 우선 옷 만드는 이들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옷은 입는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도 변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즉 모든 한국인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해는 지식에 따라 깊어지고 지식은 관심에 의해 커진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관심이 모아지고 그에 따라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4. 한복의 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5. 한복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을까요?

재발견하다, 조류, 격상되다, 살살이, 고분 벽화, 무사, 맵시, 시중꾼, 집약되다, 전근대, 거둬, 매듭짓다, 창출하다 조화(시키다)

어린이 옷 어른 옷, 남성 옷 여성 옷, 예식용 옷 평상 옷, 홑옷 겹옷 핫옷 등 한복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한꺼번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갖가지 서양식 옷인 양복과 전혀 다르면서 잘 비교되는 한복의 아름다움은 몇 개의 관점에서 크게 묶을 수 있다. 그것은 한복의 선과 색 그리고 형태에 깃들여 있는 아름다움이다.

선(線)

6. 한복의 '선'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의 옷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반전하면서 유연한 선의 흐름을 엮어 낸다. 한복에는 여유가 있어 언제나 넉넉하다. 넉넉한 흐름은 곡선으로 나타난다. 온돌방 생활에는 곡선의 여유가 실용성과도 관련이 있다.

7. 여성 한복은 왜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었을까요?

여성 옷에서 보이는 한복의 선은 삼각형 A 라인이다. 삼각 형태는 동양에서 천지인(天地人)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한다. 치마저고리의 선은 움직일 때마다 잔잔한 물에 퍼져 나가는 물결처럼 운치가 풍겨 나온다.

폭이 넓은 치마는 휘어지는 주름이 많아 입으면 감칠맛이 난다. 좋은 음식의 깊은 맛같이 의복도 감칠맛이 풍기는 것이 진짜 우리 멋이다. 옛날에 무명 모시 등의 기본 폭은 아주 넓었다. 그래서 열두 폭으로 만든 풍만한 치마폭에는 넉넉한 멋이 서렸다.

또 지금은 겹치마를 당연한 것처럼 간주하는데 옛날에는 홑치마도 흔히 입었다. 물론 흘러내리는 홑치마의 선은 내밀한 몸을 감추는 양 은근한 멋을 감돌게 했다. 한복은 이처럼 안팎의 선을 이상적으로 처리한 옷이다.

한복에는 만드는 사람의 애정이 담백 담겨 있다. 한뼘한뼘의 바느질에 지아비를 위한 지어미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여 우아한 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저고리 동정이 달린 옷을 보기가 쉽지 않다. 손이 많이 가는 까닭이다. 옛 부인들은 대님 하나에도 계절, 색감, 촉감을 꼼꼼 생각하고 골랐다. 여름날 잠자리 날개 같은 고의적삼에 휘휘 날리는 하이얀 세모시 두루마기를 입고 길을 가면 뭇사람들이 새삼 쳐다보았다.

홑옷, 겹옷, 핫옷, 한꺼번에, 묶다, 깃들다, 곡선, 반전하다, 유연하다, 엮다, 잔잔하다, 운치, 풍기다, 휘어지다, 감칠맛, 무명, 모시, 풍만하다, 치마폭, 넉넉하다, 서리다, 겹치마, 홑치마, 흘러내리다, 내밀하다, 은근하다, 감돌다, 담백, 한뼘한뼘, 지아비, 지어미, 지극하다, 우아하다, 동정, 달리다, 대님, 색감, 촉감, 꼼꼼, 잠자리, 고의적삼, 휘휘, 하이얀다, 세모시, 두루마기, 뭇사람

옛 한복에는 향기마저 풍겼다. 향기가 나는 것은 잣풀을 만들어 한복에 풀을 먹여 놓았기 때문이다. 은근한 잣내음이 배어 나오는 남자 한복의 옷 향기는 지금의 어느 향수 못지않다.

색(色)

한복의 아름다움은 원색 대비에 있는 줄 알려졌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을 살펴보면, 원색은 원색대로 썼지만 명도와 채도를 낮춘 차분한 중간색들을 즐겨 썼다. 모두 무게가 있고 세련된 색깔이었다.

이 세련된 색은 고분 벽화와 도자기에서 잘 나타난다.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고려의 고분 벽화는 무게 있는 원색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는 질푸른 색이면서 푸른색이 아니고, 흰색이면서 흰색이 아닌 착 가라앉은 세련된 색깔을 가졌다. 이러한 감각이 옷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 한복은 치자, 진달래, 앵두 등으로 옷감에 물을 들인 것이다. 이 천연 물감 염색은 한번 입고 빨면 그 빛이 바랜다. 그래서 빨 때마다 어렵게 다시 물을 들여 입었다. 이렇게 정성들여 물들인 색은 밝고 청초했다.

다홍색의 옷감은 다홍색 바탕에 검은 물감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듯 깊이가 있는 색이다. 노랑저고리도 샛노랑이 아니다. 달걀 노른자의 색보다 더 침착하고 가라앉은 빛깔이다. 여기에 자주색 회장을 단다. 혼례 의상인 원삼도 지금 흔한 짙은 연두색이 아니다. 녹두껍질색이나 버드나무잎 같은 색이다. 다시 표현하면, 본래의 한복 색깔은 요즘의 색보다 명도와 채도를 1~2도씩 낮춘 것이다.

한복은 입는 이에 따라 엄격히 색을 배합했다. 치마와 저고리의 색은 아래가 진하고 위가 엷게 배색을 했다. 대체로 미혼 여성은 홍치마나 꽃분홍 치마에 노랑과 연두색 저고리를 기본색으로 변화를 주었다. 색동저고리는

8. 한복의 '색'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봅시다.

9. 한복의 색깔은 입는 이가 입의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잣풀, 풀, 잣내음, 배다, 못지않다, 원색, 대비, 유물, 명도, 채도, 차분하다, 중간색, 단적, 고려청자, 조선백자, 질푸르다, 착, 치자, 앵두, 물감, 바래다, 청초하다, 다홍색, 떨어뜨리다, 샛노랑, 원삼, 연두색, 배합하다, 배색, 꽃분홍, 노랑, 색동저고리

어른 옷을 짓고 남은 자투리를 모아 만든 4세 이하의 어린이 옷이다. 부인용 한복은 빨간 치마 남치마를 기본색으로 자주색, 가지색, 감색, 아청색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 저고리는 옅은 노랑, 옥색, 분홍색이 중심이다. 나이든 이는 옥색과 회색 등으로 단조로웠다.

특히 결혼한 젊은 여성은 겨드랑이 소매끝 깃을 짙은 자주색으로 배색한 삼회장저고리 또는 겨드랑이는 짙은 자주색으로, 끝동은 남색으로 배색한 반회장저고리를 입었다. 깃과 고름을 자주색으로 대어 입으면 남편이 있다는 표시였다.

형(形)

한복의 매무새는 머리 빚는 모양새와 옷 입음새가 조화를 이루어야 살아난다. 조선 후기 머리 빚는 모양새는 큰머리, 어여머리, 동예머리, 얹은머리, 첩지머리, 쪽진머리, 땡은머리, 새양머리 등 10여 가지나 되었다. 것처럼 머리 장식에 사치의 극을 달린 때도 있었다. 치마저고리 외에도 족두리 화관 조바위에 장옷 쓰개치마 너울을 썼고, 혼례 때 입는 원삼 활옷이며 속곳 버선과 노리개에 이르기까지 매무새 내는 것이 다양했다.

한복 입음새의 원칙은 윗도리는 박하고 아래는 후한 것이다. 저고리는 짧고 간단하게, 치마는 길고 폭을 넉넉히 했다. 여기에 고름을 많이 늘어 멋을 더했다. 길게 나부끼는 옷고름의 선은 불균형 속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한복에서 속옷은 맵시를 위한 반침옷으로 입었다. 정결한 미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옷이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저고리 밑에 속저고리를 받쳐 입었고, 치마는 단속곳과 속치마로 속이 내비치지 않게 했다. 속옷을 많이 입고 걸은 하드르르 얇게 입으면 옷맵시가 났다.

한복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입었을 때 기품이 흐르는 것이다. 동정 깃

자투리, 남치마, 기본색, 가지색, 감색, 아청색, 옥색, 단조롭다, 소매끝, 깃, 삼회장저고리, 끝동, 반회장저고리, 고름, 대다, 매무새, 모양새, 입음새, 살아나다, 큰머리, 어여머리, 동예머리, 얹은머리, 첩지머리, 쪽진머리, 땡은머리, 새양머리, 사치, 족두리, 화관, 조바위, 장옷, 쓰개치마, 너울, 활옷, 속곳, 버선, 노리개, 윗도리, 박하다, 후하다, 늘이다, 더하다, 나부끼다, 옷고름, 불균형, 균형, 반침옷, 정결하다, 속저고리, 단속곳, 내비치다, 하드르르, 기품

10. 조선 후기의 머리 빚는 모양새는 왜 10여 가지나 되었을까요?

11. 한복의 옷고름은 왜 길게 했을까요?

12. '기품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 아름다운 목의 선을 드러내며 꼭 맞는 동정은 정숙한 여성미를 표현한다. 치마폭에서 풍성히 우러나오는 곡선과 저고리의 배래와 도련 그리고 버선코의 곡선은 서로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우아한 형태를 만든다. 특히 궁중 의상의 위풍은 어느 나라 옷에 못지않게 대담하고 위엄이 있다.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 도포 갓으로 대표되는 남성 한복은 단아한 선비의 풍모를 잘 나타내 준다. 갓을 썼을 때 검은 망을 통해 비쳐 보이는 얼굴, 가슴 위로 올려 매는 도포의 끈은 부드러움과 신비감을 풍기게 한다.

한복의 바지는 서양 바지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달라붙는 서양 바지가 전투형이라면 한복의 바지는 평화형이다. 서양의 바지가 활동성이 높다면 한국의 바지는 휴식에 좋다.

한복은 외형에도 정성과 품위를 지니지만 피부에 닿는 촉감을 더욱 중요시해서 안감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무명저고리를 몇 번씩 기워서 입을 지언정 안감만은 부드러운 천으로 대어 살에 닿는 촉감을 좋게 했다.

3. 한복과 문화 산업

오늘날 문화는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서양식 옷이 범람하지만 새로운 옷에 대한 모색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복이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은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미를 바탕으로 현대의 세련된 미가 한복에 더해진다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행 옷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한복의 원형을 충실히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인이 입던 옛 옷의 원형을 찾아 선과 색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충실히 재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복에 현대성을 가미해서 세계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우아한 아름다움에 실용성이 결합되려면 한결 돋보일 것이다. 사계절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해 온 우리 옷은 포용성이 크고 보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상표, 누구의 도안으로 한복이 세계화될 것인가?

정숙하다, 여성미, 풍성하다, 우러나오다, 배래, 도련, 버선코, 꾸밈없다, 궁중, 위풍, 위엄, 도포, 갓, 단아하다, 풍모, 망, 대조적, 달라붙다, 품위, 닿다, 안감, 범람하다, 모색, 충실히, 살리다, 재현하다, 가미하다, 결합이다, 한결, 돋보이다, 포용성, 보온성

13. 한복 바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4. 한복을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위와 문법

단어

명 사: 흐름, 구들, 복식, 불품, 가랑이, 조류, 고분 벽화, 무사, 맵시, 시중꾼, 전근대, 조화, 흘웃, 겹웃, 핫웃, 곡선, 운치, 감칠맛, 무명, 치마폭, 모시, 겹치마, 흘치마, 지아비, 지어미, 동정, 대님, 색감, 촉감, 잠자리, 고의적삼, 세모시, 두루마기, 못사람, 잣풀, 풀, 잣내음, 원색, 대비, 유물, 중간색, 명도, 채도, 고려청자, 조선백자, 치자, 앵두, 물감, 다홍색, 샛노랑, 원삼, 연두색, 배색, 꽃분홍, 노랑, 색동저고리, 자투리, 남치마, 기본색, 가지색, 감색, 아청색, 옥색, 분홍색, 회색, 소매, 깃, 삼회장저고리, 끝동, 반회장저고리, 고름, 매무새, 모양새, 큰머리, 어여머리, 동예머리, 얹은머리, 첩지머리, 쪽진머리, 땡은머리, 새양머리, 사치, 족두리, 화관, 조바위, 장옷, 쓰개치마, 너울, 활옷, 속곳, 버선, 노리개, 윗도리, 옷고름, 불균형, 균형, 반침옷, 속저고리, 단속곳, 기품, 여성미, 배래, 도련, 버선코, 궁중, 위풍, 위엄, 도포, 갓, 풍모, 망, 품위, 안감, 모색, 포용성, 보온성

명사·관형사: 단적, 대조적

동 사: 어우러지다, 침투하다, 보존하다, 제패하다, 공존하다, 구겨지다, 재발견하다, 격상되다, 집약되다, 매듭짓다, 창출하다, 묶다, 깃들다, 반전하다, 엮다, 풍기다, 휘어지다, 서리다, 흘러내리다, 달리다, 감돌다, 배다, 바래다, 떨어뜨리다, 배합하다, 대다, 살아나다, 더하다, 늘이다, 나부끼다, 내비치다, 우러나오다, 달라붙다, 닿다, 범람하다, 가미하다, 곁들이다, 돋보이다

형용사: 끈질기다, 꼬깃꼬깃하다, 유연하다, 잔잔하다, 풍만하다, 내밀하다, 은근하다, 지극하다, 우아하다, 하이얗다, 못지않다, 차분하다, 질푸르다, 청초하다, 단조롭다, 박하다, 후하다, 정결하다, 정숙하다, 풍성하다, 꾸밈없다, 단아하다

부 사: 속속들이, 더구나, 꼬깃꼬깃, 아예, 살살이, 거듭, 한꺼번에, 담백, 한뼘한뼘, 곰곰, 휘휘, 착, 하드르르, 충실히, 한결